

전일동향

전일대비 0.40원 하락한 1,362.90원에 마감

22일 환율은 전일대비 0.40원 하락한 1,362.90원에 마감했다. 이날 환율은 NDF 증가를 반영해 전 거래일 대비 1.00원 상승한 1,364.30원에 개장했다. 소폭 상승 출발한 환율은 장 초반 코스피 하락 출발, 결제수요 우위에 상승압력이 우세했으나 이내 코스피 반등 및 위안화 강세에 하락전환했다. 오후장에서 환율은 수급에 연동되어 1,360원 초중반을 횡보하며 1,362.90원에 마감했다. 장중 변동 폭은 5.60원이었다. 한편, 이날 외환시장 마감시점의 엔-원 재정환율은 871.34원이다.

전일환율변동	구분	시가	고가	저가	종가(15:30)	평균환율 (매매기준율)
	달러	1364.30	1365.80	1360.20	1362.90	1363.10
엔화	872.82	873.96	868.83	868.98	-	
유로화	1479.50	1482.55	1474.11	1475.01	-	

F/X(달러-원) 스왑포인트		1M	3M	6M	12M
	보장환율(수출)		-0.6	-5.45	-12.78
결제환율(수입)		-0.3	-4.68	-11.14	-23.68

* 해당월 최종영업일까지의 스왑포인트, 전일자 청약고객이 수취한 스왑포인트

* 당일 청약시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하는 바, 자세한 사항은 환위험관리 지원센터(<https://www.ksure.or.kr/rh-fx/index.do>) 확인

금일 전망

매파적인 FOMC 의사록에...1,360원대 중후반 중심 등락 전망

NDF에서 환율은 스왑포인트(-2.30원)를 고려하여 전 거래일 현물환 증가(1,362.90) 대비 3.40원 상승한 1,364.00원에서 최종호가 됐다.

금일 환율은 연준의 매파적 기초 재확인에 따른 달러화 강세에 상승 압력이 우세할 것으로 예상된다. 5월 FOMC 의사록에서 다수의 연준 위원이 현재 통화정책이 물가목표를 달성할 만큼 충분히 제약적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덧붙여 필요한 경우 추가 긴축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했다. 의사록 공개 이후 미국 국채금리와 달러화는 상승폭을 확대했고 파운드를 제외한 주요 통화는 하락세를 보였다. 파운드화는 영국 물가지표가 예상치를 웃돌자 BOE 금리인하 낙관론이 후퇴하며 강보합 마감했다. 금일 달러원 환율은 매파적인 FOMC 의사록을 소화하며 강달러 흐름을 쫓는 역외 롱플레이, 결제수요 유입 등에 상승 압력이 우세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월말 수출업체 네고, 위험선호 회복 등은 상단을 지지할 것으로 보인다.

금일 달러/원 예상 범위	1361.00 ~ 1369.00 원
----------------------	----------------------------

체크포인트	■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 +2967.94 억원
	■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NDF) :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3.40원 ↑
	■ 美 다우지수 : 39671.04, -201.95p(-0.51%)
	■ 전일 현물환 거래량(종합) : 104.77 억달러
	■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 +1814 억원

※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